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0호 [무게 제23062호] 주제99 (2010)년 4월 20일 (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지!

우리 조국땅에 천리마대교의 열풍이 휘몰아치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이 일떠선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 혁명은 멀리 전진하고 세대는 바뀌었으나 우리 당과 인민은 천리마대교조시기의 영웅들을 잊지 않고 있으며 그들의 위훈을 세기를 이어 전해가고 있다.

천리마대교조시기의 영웅들은 우리 조국건설에서 대교조의 역사를 개척한 선구자들이며 조국번영의 일대 전진기를 열어놓은 대교조시대의 영웅들을 잊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헌을 한 참다운 애국자들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천리마대교건설에서 배출된 우리의 영웅들은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진리를 체득한 인간개조의 선구자들이며 집단적혁신운동의 기수들입니다.》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당이 내세워주고 있지 않는 참된 애국자가 되는것은 최고의 영예로 된다.

천리마대교조시기의 영웅들은 어렵었던 전후복구건설시기에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이 땅에 자주, 자립, 자위를 위용 떨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도록 우리 당이 잊지 않고 조국이 기억하는 애국자가 되자면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 하는 빛나는 모범을 보여 주었다.

오늘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를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내세워주고 있지 않는 참된 애국자들과 같은 선군시대의 수많은 열혈의 애국자들이 배출되고 있다. 성장의 로동제국이 야곱공업에서 일대

## 사설 천리마시대 기억하는 영웅들처럼 당과 조국이 되자

오늘의 투쟁에서 누구나 다 사상과 신념의 강자, 정신력의 강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당이 천리마대교조시기 영웅들의 위훈을 오늘날도 높이 평가해주고 있는것은 그들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생명으로, 확고 부동한 신념으로 삼고 불굴의 정신력으로 조국번영의 비상한 전진속도를 창조하였기때문이다. 기계에서 밤이 나오는가고 하면서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나선자들에게 철추를 내리며 우리 당의 주체적인 경제건설사상과 로선을 견결히 옹호하고 그 정당성을 실천으로 확증한 애국자들이 바로 천리마대교조시기의 영웅들이다.

우리가 오늘의 하루하루를 영웅적위업으로 수행하자면 천리마대교조시기의 영웅들이 지닌 사상정신세계의 높이를 따라세워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늘 우리의 장엄한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천리마대교조시기의 영웅들처럼 우리 당의 사상과 로선의 절대적인 신봉자, 결결한 옹호자, 철저한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질적특성과 우월성, 생활력과 불패성을 깊이 체득하고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의 본래를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을 경제강국건설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 우리의 혁명적대교조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누구나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 공격전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조국번영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이 참다운 애국자, 영웅이다. 천리마대교조시기의 영웅들은 보람찬 건설속도를 창조하여 사상사적으로 높은 위훈을 올렸으며, 우리 나라에서 비날론공업의 새 역사를 개척하고 비날론공포가 쏟아지게 하여 우리 인민을 기쁘게 한 기적도, 놀라운 건설속도를 창조하여 《평양번영기》를 아로새기며 온 나라를 들끓게 한 경이적인 사면도 당쟁을 실천으로 꽃피운 영웅들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주기 위한 오늘의 대교조전투에서도 천리마대교조시기의 영웅들과 같은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들이 수없이 배출되어야 한다. 높은 사업실적으로 당을 받드는 이러한 애국자들의 대교가 늘어날 때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는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

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영웅적위훈을 세움으로써 우리 당의 강성대국건설사에 뚜렷한 삶의 흔적을 남겨야 한다. 위대한 수령김정일씨 심어주신 천리마의 정신이 1950년대에 유망무명의 수많은 애국자, 영웅들을 낳았다면 오늘의 혁명적대교조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기적인 기적과 위훈창조의 무기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혁명적군정정신이다. 우리는 군인정신, 군인기질, 군인기백으로 대교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의 창조자처럼 세기를 주름잡는 위훈을 창조하여야 한다. 천리마대교조시기 영웅들의 기질을 본받아 우에서 대주면 좋고 안대주어도 자신의 힘으로 무조건 해낸다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우리 당의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 나가야 한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신달이 아니라 명언을 지킴으로 삼고 투쟁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본능을 남김없이 보여 주어야 한다.

혁명적대교조의 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오늘이 사는 투쟁기회를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천리마대교조시기의 영웅들이 해아릴수 없는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험로를 헤쳐나가고 공업공국의

대문을 열어제낀것은 조국의 앞날과 오늘의 우리 세대들의 행복을 위해서였다. 우리가 일떠세우는 사회주의강성대국에서 우리 세대가 살고 후대들이 살게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이 안겨준 비상한 창조정신으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후대들에게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물려주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야 한다. 구월산의 바위에 《미래를 위하여 고난의 마지막해 1997》이라는 글발을 새기고 역세기 투쟁한 군인들처럼, 청년을 책임지고 만민을 보충하는 광산의 구멍을 치며 폭풍처럼 내달리고있는 최첨단기술군인인설사들처럼 계속혁신, 일떠세우고 국토건설을 하여도 멀리 앞을 내다보며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하야야 한다.

오늘의 대교조는 과학기술의 대교조이며 우리 당은 과학기술의 힘으로 대교조의 열풍을 일으켜나가는 새 기술의 개척자, 견조병을 높이기 내세워주고 있다. 우리 당과 조국의 력사에 남기는 삶의 자욱의 깊이와 곧 과학과 기술로 조국번영에 이바지하는 위훈의 높이이다. 우리는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서 과학기술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불사르며 비약의 폭풍을 안아온 천리마시대의 영웅사자가 최첨단을 돌파해나가는 21세기 기술혁명의 영웅사자로 출기차게 이어지게 하여야 한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과 지식으로 생산과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공장, 기업소들의 기술개진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면 후날에 가서도 은을 내게 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운전을 맡은 대교조시대의 기수답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웅적위훈으로 불러일으키며 언제나 돌격전의 앞장에 서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인민의 행복을 쫓아내기 위하여 일을 많이 하고 실적을 올리는 진짜배기일군들을 만나실 때 제일로 기뻐하신다. 일군들은 강성대국건설의 성세가 다름아닌 자신들에게 달려있다는 비상한 사명감을 지니고 대교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며 대교조의 앞장에서 전속으로 내달려야 한다. 우리 당이 언제나 잊지 않고 추억하고있는 당의 기조강성기일군들처럼 일밖에 모르는 일군, 당앞에 무한히 고지식하고 당의 방침 관철에서 끝장을 보는 일군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업을 대교조시대의 요구에 맞게 통이 크게 작전하고 폐기있게 실천하며 언제나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대중을 영웅적위훈으로 불러일으키는 능숙한 정치활동가가 되어야 한다. 모두다 천리마대교조시기의 영웅들처럼 조국의 강성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불멸의 위훈과 기적을 창조함으로써 우리 당의 혁명전사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자.

## 래양민족의 긍지와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앞으로!

### 제 1 2 차 김일성 화 축전 폐막

【평양 4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제 1 2 차 김일성 화 축전이 폐막되었다. 이번 축전은 김일성화명명 4 5 동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김일성화는 자주시대 인류의 마음속에 피어 난 불멸의 꽃이다》 발표 5 5이 되는 뜻깊은 해에 성대하게 진행될것으로 하여 불멸의 꽃 축전임을 더욱 빛내이는 의의 깊은 계기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실 불타는 마음을 안고 인민군부대, 대학, 교육, 보건, 출판, 보도기관 등 단위들과 군인, 근로자, 청소년학생들이 정성껏 피운 태양의 꽃들이 축전장을 활황하게 장식하였다. 해외 동포들도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에 대한 한없는 경모심을 안고 불멸의 꽃들을 축전장에 진시하였다.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대사관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 외교 대표부와 국제기구대표부들, 외국의 친선 및 반대성단체, 기업체들, 인사들, 불멸의 꽃보급위원회 회원들이 축전에 참가하여 인민자유위원회를 거대한 공헌을 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인민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 청소년학생들 그리고 해외 동포들, 외국 손님들로부터 열렬한 축하를 이룬 축전은 자주시대 만민의 마음속에 피어 난 김일성화는 영원히 만발하리라는 것을 뚜렷히 보여 주었다. 이번 축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물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고있는 천만민족의 신념과 의지를 다시금 과시하였다. 폐막식이 19일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관에서 진행되었다. 양행성동지, 김기남동지와 내각, 성, 중앙기관, 근로단체 대표들, 인민군인들, 근로자, 청소년학생들 그리고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1연조 선인대표단 성원들, 해외동포들이 폐막식에 참가하였다. 피프티 리안더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 임시대사부와 대사관성원들, 아부둘레이 디알 주 기네빌정화친선 대표를 비롯한 외국 손님들이 폐막식에 초대되었다. 폐막식은 《김일성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

위수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 특등상이, 총련중앙상임위원회와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별상이 수여되었다. 또한 60여개 단위에 최우수상, 우수상 등이 수여된것을 비롯하여 참가자들에게 대한 평가가 있었다. 안동춘문화상이 폐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제 1 2 차 김일성화 축전이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 류의 뜨거운 마음에 떠날수록 더욱 강성대국으로 진행되며 대우에 응감하였다. 이번 축전은 조국과 인민, 시대와 인류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주체의 태양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호모의 정이 뜨겁게 분출되고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65 65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보다 높은 강철생산목표를 내세웠다. 그 실현을 위해 당, 행정일군들은 지난해 150 일 전투와 100 일 전투의 투쟁 기풍으로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도록 정치사업의 화력을 집중하면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있다. 중요생산현장을 타고났다는 일군들은 지난해 전투경험에 기초하여 걸린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어나가며 대교조전군의 북소리가 드세게 울려 퍼지도록 하고 있다. 1 강철직장의 일군들과 용해공들은 한차지의 쇠물이라도 더 뽑아내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생산라인에서 소 리치며 달린대 그 기세도 올해에도 많은 량의 철강재를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고 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1. 4 분기에 대규모 수력발전소건설성과를 인민경제 중요부분들을 강화하여 전기로들이 자기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도록 하고 있다. 조피부문의 노동자들은 예비부속품을 넉넉히 확보하고 설비들의 만기동을 보장하여 강철생산량을 높이고 있다. 용해공들의 생산성과에

호응하여 압연강재생산단위의 노동자, 기술자들도 헌신의 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6 천크레슬리치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설비들의 만기동을 보장할수 있게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며 기초하여 발전설비 생산에 필요한 단조품생산량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그들은 하루전투목표를 돌파하고도 성취치 않아 다음과일의 작업을 도와주면서 집중적인 생산전투로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압연직장의 로동자들은 현행 생산과 함께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힘을 쏟을 것이다. 로동자들은 기술 능숙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생산공정의 기술관리에 큰 힘을 넣고 있는 가운데 압연강재생산에서는 혁신이 창조되고 있다. 보강단위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기분생산단위들의 로동제급과 한전호에 선심준으로 제강량과 내화물, 부원료, 부속품보장을 앞세워 나가고 있다. 10월의 대축전을 빛나도록 노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힘차게 내달리는 강선로동제급의 드높은 열의에 의해 철강재 생산투쟁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본사기자 전성삼**

### 전인민적송가로 올려 퍼진 위인칭송의 메아리

【평양 4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막되었던 제 2 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폐막식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받들어 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의지가 뜨겁게 차 넘치는 가운데 진행된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은 천만민족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준 의의 깊은 계기로 되었다. 축전참가자들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열화같은 충정을 안고 다채로운 종목들을 공연무대에 펼쳐 4월의 불멸적 열정을 성대히 기념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위대한 당의 두리에 굳게 물쳐 태양의 위업을 만대에 빛내여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열의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축전기간 중앙과 지방의 예술단체 예술인들과 예술선진들, 기동예술선동대원들, 각계층 근로자들, 해외동포예술인들은 연 100여회의 공연과 경제 선동을 통하여 배우산인민들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고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서 참된 삶을 누리고있는 우리 인민의 행복을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당의 선군명도따라 강성대국건설대전을 다그치려는 군민의 열선 신념을 잘 보여 주었다.

《전국기동에 예술선동대축전》, 《전국근로자에 예술축전》 등의 전광공발발, 축전참가단체명칭과 공연장면들이 비쳐졌다. 양행성동지, 김중립동지, 김기남동지와 오수용내각부총리, 축전조직위원회 위원장인 안동춘문화상, 관계부인 일군들, 예술인들, 근로자들이 폐막식에 참가하였다. 폐막식은 《김일성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먼저 시상식이 있었다. 무대예술창조와 균중문화예술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관수대에 예술단, 국립교향악단, 피바다극단, 국립민중예술단,

국립연극단, 평양교예단 요술창작단, 김원경명칭 평양음악대학, 황해북도, 함경남도, 강원도에 예술단, 담배련합기업소,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기동예술선동대, 평양아이스기 로프공장, 흥남비료련합기업소, 2. 8 비날론련합기업소 예술소 조에 특별상이 수여되었다. 전국전문가예술축전 시상결과 발표된데 이어 19개 단위에 단체상이, 30개 작품에 안상불상이, 10명의 참가자들에게 창작상이, 21명의 참가자들에게 개인상이 수여되었다. 축전상들에 따르는 상장포첩, 메달들이 수여되고 호기제들이 시상되었다. 폐막식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안동춘위원장님이 폐막사를 하였다.

2 중3대혁명붉은기 구성단 공장에 기술혁명의 열풍이 세차게 일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 95 (2006)년 9월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3년 남짓한 기간에 공장의 많은 종업원들이 수백건의 발명 및 창의고안증서를 받았다. 이 자랑한 성과는 공장 초급당원위원회가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학원연구사업과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줄기차게 벌리는 파장에 이룩된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붉강장에서는 실험실을 비롯한 연구기기를 튼튼히 꾸리고 지체실정을 맞게 가급에 대한 연구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 대중적기술혁신운동 활발

구성단 공장에서

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어올리면서 해마다 발명 및 창의고안현상모집을 조직진행해온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적극 받아들여진데 있다것을 높이 인식시키면서 누구나 과학연구사업과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일군들부터가 먼저 기술혁신운동에 적극 뛰어들었다. 초급당원들이 집집순배설물과 각종 물에 의한 새로운 물과 생산공정확립을 위한 경제기술적방법문제를 학위논문으로 완성발표하고 발명 및 창의고안증서 20여건을 받았다. 지베인, 기사장들 비롯한 일군들이 가급발전에서 이바지할수 있는 현실적이면서도 의의있는 종자들을 과학연구 및 기술혁신과제로 삼고 그것을 완성하여 받아들이기 위한 헌 투쟁을 벌려 성과를 거두었다. 공장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들속에서 과학연구사업과 대중



3 면으로 계속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씨뿌리기를 힘있게 다그친다

백두산위인들의 거룩한 영도의 자욱이 뜨겁게 새겨져있는 미루벌에서 불철영농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촌경리부문에서 지대별, 필지별특성과 농작물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품종을 배치하고 재배에 씨를 뿌리도록 하여야 하겠소이다.》

씨뿌리기전투를 앞둔 어느날이었다. 돌미산덕우에 올라 대인공호수로 전변된 평양저수지와 드넓은 미루벌로 흐르는 사랑의 생명수를 바라보며 곡산영농군들은 아버지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일 목표밑에 불철영농전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벌일 작전을 펼치였다. 당일 그들은 오랜 세월 사람 못할 곳으로 버림받았던 불모의 땅을 옥토로 전변시켜주시는 아버지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잊지 말고 미루벌농사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신 경에 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의다지였다.



비행 상모판씨 뿌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잘하고 있다. -안주시 운송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장정일 적음

미루벌에 휘몰아치는 비약의 열풍

곡 산 군 안 의 일 군 들 과 농 장 원 들

로 부름받았던 곡산군 안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이어서는...

이어서는... 영평의 땅에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지 못한다면 우리 어찌 부락을 미루벌사람들이라고 멋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날 작업반장을 만난 판리원장님은 어떻게 되어 씨뿌리기준비를 앞당길수 있었는가고 물었다. 《한해농사의 결실은 모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성과는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씨뿌리기준비를 제철을 앞당겨서 벼를 심어놓았기 때문이라고...

이어서는... 영평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모판마다 온갖 정성을 다하고있는 평양, 통일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일손에서는 불바람

불바람을 맞으며... 영평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모판마다 온갖 정성을 다하고있는 평양, 통일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일손에서는 불바람

불바람을 맞으며... 영평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모판마다 온갖 정성을 다하고있는 평양, 통일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일손에서는 불바람

불바람을 맞으며... 영평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모판마다 온갖 정성을 다하고있는 평양, 통일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일손에서는 불바람

계절을 앞당기며 빈틈없이

신 천 군 명 석 협 동 농 장 에 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농사를 잘 지어야 합니다.》

신천군 명석협동농장에 가면 씨뿌리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진행하여 일정한 성과를 올리고있는 것을 볼수 있다.

이 성과는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씨뿌리기준비를 제철을 앞당겨서 벼를 심어놓았기 때문이라고...

이 성과는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씨뿌리기준비를 제철을 앞당겨서 벼를 심어놓았기 때문이라고...

이 성과는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씨뿌리기준비를 제철을 앞당겨서 벼를 심어놓았기 때문이라고...

이 성과는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씨뿌리기준비를 제철을 앞당겨서 벼를 심어놓았기 때문이라고...

이 성과는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씨뿌리기준비를 제철을 앞당겨서 벼를 심어놓았기 때문이라고...

이 성과는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씨뿌리기준비를 제철을 앞당겨서 벼를 심어놓았기 때문이라고...

이 성과는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씨뿌리기준비를 제철을 앞당겨서 벼를 심어놓았기 때문이라고...

이 성과는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씨뿌리기준비를 제철을 앞당겨서 벼를 심어놓았기 때문이라고...

이 성과는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씨뿌리기준비를 제철을 앞당겨서 벼를 심어놓았기 때문이라고...

이 성과는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씨뿌리기준비를 제철을 앞당겨서 벼를 심어놓았기 때문이라고...

이 성과는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씨뿌리기준비를 제철을 앞당겨서 벼를 심어놓았기 때문이라고...

이 성과는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씨뿌리기준비를 제철을 앞당겨서 벼를 심어놓았기 때문이라고...

이 성과는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씨뿌리기준비를 제철을 앞당겨서 벼를 심어놓았기 때문이라고...

통천양말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얼마전 3대혁명붉은기 통천양말공장을 찾았던 우리는 당일군들이 초급당위원들의 생활조건보장에 대한 관심이 클수록 대중의 열의도 더 높아지고 단위의 모든 사업도 잘 된다는것을 다시금 깊이 느끼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어머니가 자기 아들딸들을 사랑하듯...》

이 공장의 건물들은 하나와 같이 아름답다. 그중에서도 새로 완공하였다는 2층으로 된 한 건물이 우리의 눈길을 더 끌었다.

1층에는 식사칸과 주방, 한중간이 딸린 목욕탕과 리발실, 미용실이 있고 2층에는 로동자들을 위한 학습방과 도서실이 자리잡고있으며 난방보장시설도 잘 갖추어져있는 건물이었다.

우리에겐 지대한 정경에 동무는 말하였다. 《로동자들을 위한 우리 초급당비서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우냐를 아담하게 꾸려진 건물이 다 말해줍니다.》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고 초급당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로동자들을 위한 초급당일군의 진정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초급당비서 김영진동무는 이 공장에 온지 얼마 안되지만 로동자들의 생활조건을 잘 보장하는것이 당일군의 중요한 임무라는 관점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해놓았다.

그가 이 공장에 배치되었을 때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것이 학습생들의 생활조건과 편의봉사시설이 양당향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이었다.

초급당일군은 그때 이렇게 결심하고 학습과 편의봉사시설부터 꾸리기로 하였다. 그는 공장의 한쪽에 있던 낡은 건물을 헐어버리고 학습과 편의봉사시설을 갖춘 2층짜리 건물을 건설할의향을 표시했음에 모든 일군들은 적극 지지해나갔다.

초급당일군은 작은 부지에 로동자들의 마음에는 드는 건물들을 짓기 위해 며칠밤을 밝히며 설계초안을 작성하였다. 설계초안을 본 일군들이 모두 좋다고 찬성하였다.

하지만 그는 로동자들의 의견이 기쁘고 하면서 그것을 대중들에게 불어넣었다. 이 과정을 거쳐 보기에도 멋있고 실용성이 있는 건물설계가 완성되게 되었다.

생산은 생산대로 내밀면서 건설을 하자니 걸리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초급당일군은 어려운 건설문제를 솔선 자신이 맡아나섰다. 그는 자체보장준비를 잘 하였다가 건설을 위약대내었다.

그러하여 짧은 기간에 로동자들의 보급품이 번듯하게 꾸러지게 되었다. 로동자들을 위한 당일군의 진심은 대중의 정신클을 폭발시켰다.

초급당일군은 뜨거운 공장을 안고 일터를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스스로 떨쳐나서서 되었으며 생산에서도 혁신을 일으켰다. 그러나 당일군의 진심은 얼마나 위대한 정치사업인가.

본사기자 박철

실천적 모범으로

은파군 류정협동농장 제8작업반 부락당비서 장필수동무는 언제나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 나가고있는 유능한 당초급일군이다.

오직 살로써 우리 당을 받들어야 한다는 역철같은 신념을 안고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농장에서 살다살이 하면서 이신작적으로 농장원들을 불러일으켰다.

로동농사원 김영식

로동농사원 김영식

로동농사원 김영식

로동농사원 김영식

로동농사원 김영식

로동농사원 김영식

로동농사원 김영식

로동농사원 김영식

로동농사원 김영식

로동농사원 김영식

로동농사원 김영식

로동농사원 김영식

로동농사원 김영식

로동농사원 김영식

로동농사원 김영식

로동농사원 김영식

로동농사원 김영식

보답의 숨결 높이는 협동벌

증 산 군 풍 정 협 동 농 장 에 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라가 부강하고 흥성 거리게 하자면 먹을것이 넘쳐야 합니다.》

씨뿌리기가 한창인 증산군 풍정협동농장의 간직벌에 새날이 밝아왔다. 눈부러 이득처럼 펼쳐진 간직벌이 이른아침부터 씨뿌리기전투에 펼쳐나 일손을 다그치는 일군들과 농장원들로 들끓었다.

농장을 찾았을 때 간석지벌의 농사정형과 농민들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아보고 농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아버지 수령님, 아버지 수령님의 유훈을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려차례나 농장을 찾으시어 안겨 주신 사랑과 믿음은 어이 다 말할수 있랴.

그 사랑, 그 믿음에 보답하고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이 한바탕 농장을 위하여 헌신의 힘을 바쳐가며

씨뿌리기준비를 빈틈없이 하였다. 농장일군들은 씨뿌리기를 앞두고 물결정리를 위약대내게끔 작전을 하고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였다.

농사이자 물놀이이다. 이것을 잘 알고있는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물결정리전투에 한사같이 떨쳐나섰다. 공사과제는 방대하였다. 하지만 제 1, 2, 13작업반의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애국의 성실한

뜻을 바치였다. 난지지 푸르기를 잡고 일꾼에 뛰어난 농장일군들과 삼남을 길들이며 흙을 쪼옥며 웃음기는 제대일군들, 머리수건을 날리며 맞달이를 잡고 달리는 농장원치녀들의 가슴속에도 간석지벌에 풍년로직거리 놀이 쌓이울릴 각오가 뜨겁게 넘쳐났다. 그리하여 이들은 물결정리를 계획된 날짜보다 앞당겨 끝낼수 있었다.

만단의 준비밑에 씨뿌리기전투가 시작된 간석지벌은 들끓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불바람 열정을 달

해주는듯 씨뿌리기가 진행되는 포진마다 붉은 기발들이 세차게 휘날리었다. 이른아침부터 작업반들의 씨뿌리기전투장은 더욱 들끓었다. 작업반장 진용삼동무는 하루일을 넘쳐하고도 성취하지 않았다.

수평을 보장해야 마가 곤란하게 나오며 고문서 부품을 질적으로 고루고 부식토를 두텁히 깔아주는 리운순, 차방에 동무들 비롯한 농장원들, 한말한일 정성을 담은 씨앗을 뿌리고 바람 한결 스며들세라 비닐막을 꼼꼼히 덮어주는 리운순, 리경환동무와 농장원들... 이들은 아니었다. 아버지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은 어느 작업반에서나 세차게 타올랐다.

백두산위인들의 크나큰 사랑에 압복중심과로 보답하려는 이분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높은 열의에 의하여 씨뿌리기실적은 계속 오르고있다. 본사기자 서승호

백두산위인들의 크나큰 사랑에 압복중심과로 보답하려는 이분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높은 열의에 의하여 씨뿌리기실적은 계속 오르고있다. 본사기자 서승호

백두산위인들의 크나큰 사랑에 압복중심과로 보답하려는 이분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높은 열의에 의하여 씨뿌리기실적은 계속 오르고있다. 본사기자 서승호

백두산위인들의 크나큰 사랑에 압복중심과로 보답하려는 이분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높은 열의에 의하여 씨뿌리기실적은 계속 오르고있다. 본사기자 서승호

백두산위인들의 크나큰 사랑에 압복중심과로 보답하려는 이분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높은 열의에 의하여 씨뿌리기실적은 계속 오르고있다. 본사기자 서승호

백두산위인들의 크나큰 사랑에 압복중심과로 보답하려는 이분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높은 열의에 의하여 씨뿌리기실적은 계속 오르고있다. 본사기자 서승호

백두산위인들의 크나큰 사랑에 압복중심과로 보답하려는 이분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높은 열의에 의하여 씨뿌리기실적은 계속 오르고있다. 본사기자 서승호

백두산위인들의 크나큰 사랑에 압복중심과로 보답하려는 이분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높은 열의에 의하여 씨뿌리기실적은 계속 오르고있다. 본사기자 서승호

백두산위인들의 크나큰 사랑에 압복중심과로 보답하려는 이분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높은 열의에 의하여 씨뿌리기실적은 계속 오르고있다. 본사기자 서승호

백두산위인들의 크나큰 사랑에 압복중심과로 보답하려는 이분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높은 열의에 의하여 씨뿌리기실적은 계속 오르고있다. 본사기자 서승호

백두산위인들의 크나큰 사랑에 압복중심과로 보답하려는 이분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높은 열의에 의하여 씨뿌리기실적은 계속 오르고있다. 본사기자 서승호

백두산위인들의 크나큰 사랑에 압복중심과로 보답하려는 이분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높은 열의에 의하여 씨뿌리기실적은 계속 오르고있다. 본사기자 서승호

백두산위인들의 크나큰 사랑에 압복중심과로 보답하려는 이분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높은 열의에 의하여 씨뿌리기실적은 계속 오르고있다. 본사기자 서승호

백두산위인들의 크나큰 사랑에 압복중심과로 보답하려는 이분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높은 열의에 의하여 씨뿌리기실적은 계속 오르고있다. 본사기자 서승호

백두산위인들의 크나큰 사랑에 압복중심과로 보답하려는 이분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높은 열의에 의하여 씨뿌리기실적은 계속 오르고있다. 본사기자 서승호

백두산위인들의 크나큰 사랑에 압복중심과로 보답하려는 이분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높은 열의에 의하여 씨뿌리기실적은 계속 오르고있다. 본사기자 서승호

백두산위인들의 크나큰 사랑에 압복중심과로 보답하려는 이분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높은 열의에 의하여 씨뿌리기실적은 계속 오르고있다. 본사기자 서승호

백두산위인들의 크나큰 사랑에 압복중심과로 보답하려는 이분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높은 열의에 의하여 씨뿌리기실적은 계속 오르고있다. 본사기자 서승호

기술개건과 3위1체

천 내 리 세 멘 트 공 장 초 급 당 위 원 회 사 업 에 서

이에 대하여 최근 모호조종 기술을 도입한 생산공정의 컴퓨터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함으로써 한해에 수천 t의 석탄을 생산할수 있는 3위1체! 이것은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이 높은 단계에서 벌어지고있는 오늘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1번수》는 누구인가 공장의 《사령관》은 지배인이다. 그는 지배인이다. 《사령관》도 역시 지배인이다. 하지만 권공부지배인은 뜻밖에도 《1번수》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이었다.

생산의 기본공정인 3호소성로운영이 일정에 오른 때였다. 공장에서는 이미 여러건의 기술개건을 선행하였었다. 그러나 늘어나는 세멘트소수로 세멘트공업발전추세에 비추어볼 때 그것은 부분적이고 소극적이였다.

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개건이 로운영에서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풀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3호소성로의 확고한 립장을 보여주고 신심을 안겨주기 위하였었다. 또한 당초초급일군, 공장당일군들에게 기술개건사업의 판조자가 아니라 그 운영을 할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때였다. 그러다 보니 로미온도와 소점온도 등

공정에서 자체의 기술력향으로 3호소성로의 컴퓨터화를 실현하였을 때였다. 아직까지는 모호조종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 어버이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실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

## 제 2 차 4 월의 봄 인민 예술 축전을 보고

### 절 절 한 그 리 움 을 안 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절세의 위인이시며 우리 민족의 어버이(아버지)인 우리 조상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인민의 대양입니다.》

몇달전 최천의 근진건설자들은 대안의 로동동계급에 자기들의 불같은 목소리를 투옥하여 보내었다.

근진건설자들의 절절한 부탁은 대안로동동계급의 가슴마다에 《최천속도》의 불길이 온 나라에 거세차게 타번지게 하는데 자기들이 맡고있는 일무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절감하게 하였다.

더우기 그들에게는 한생의 포대처럼 간직하고 사는 것이 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들을 믿으시고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경제부문에 책임일

####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기동예술선동대에서

군협의회에서 하신 간곡한 말씀이었다.

그날 나라의 전력생산에서 대안이 차지하는 위치를 다시금 밝혀주시며 대안사람들을 불러주신 어버이수령님이시었다.

대안이 세상에 들끓었다. 일군들로부터 로동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달리고 또 달렸다. 하여 이젠 같으면 발전소대상설비들을 생산하는데 몇달이 걸린것을 그들은 단석달사이로 해체해 최천에 보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리워만 지는 어버이수령님께 우리 대안로동동계급의 자랑찬 소식을 안고 가자.

이것은 지난 1월 작품선정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던 기동예술선동대원모두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다.

대장 현영선, 대원들인 김일근, 장옥영동무들은 대안로동

계급의 투쟁정신을 작품에 반영하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렸다.

기업소에 짓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도도정들을 밟고 또 밟으며 작품의 주제를 모색하였고 이제 얼마후이면 대상설비들을 생산하여 최천에 보내줄 기업소의 로동동계급과 일을 같이하며 작품의 형상을 무르익혔다.

불같은 열정과 노력속에 무려 7번이나 바뀌어진 무대에 오른 작품이 시와 이야기 《대안은 최천을 안고산다》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의 넘치는 기쁨과 건강대국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대안은 최천을 걸음걸음 안고살리라는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공원은 모두의 가슴속에 새찬 충격을 주었다.

그렇다. 최천을 언제나 안고 살라. 그러면 어디서나 기적이

창조된다.

그러나 이들의 공원을 통해 관객들의 가슴속에 소중히 안겨져있는 비단 최천의 기상은 아니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자기들의 높은 실적으로 보여주는 대안로동동계급의 충정도 관객들은 함께 받아들였다.

어제 그렇지 않았다. 지난 시기 혁명의 각이한 년대들마다에서 당시 맡겨준 과업을 제기일에 무조건 관철한 이들이었다.

어떤 시련과 난관도 과감히 뚫고 헤치며 오직 당의 중심, 그것이 곧 자기들의 대담임을 실천으로 증명해온 이들, 울헤에 들어와서만도 대안의 로동동계급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빛나게 수행할 각오에 기업소생산설비의 CNC화와 현행발전설비생산에서 나

서는 여러가지 기술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보다 밝은 전당을 열어놓았다.

하기에 관객들은 뒤이어 울려 퍼지는 너성독창 《번개처럼》 《최천속도》와 《혼성중창》 《돌파하라 최천단속》을 들으면서 현대적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기치드높이 진군해나가는 대안로동동계급의 뜨거운 심장의 목소리를 새겨안았다.

실로 무심히 들을수 없는 하나하나의 공연종목들이었다.

그것은 정녕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지난 10여년간 역세를 살며 투쟁해온 대안로동동계급의 전투실적이 그대로 글줄이 되고 노래가 된 공연이었다.

그래서 더욱 4월의 봄하늘가에 높이 울려 퍼지는 이들의 노래가 만사람의 가슴속에 저울수 없는 여운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본사기자 방경찬

### 못 잊을 그날의 기억소리

《어버이수령님, 오늘 나는...》

은 나라 인민이 드리는 축원의 인사를 오늘만은 받으셔야 한다고 열차원은 위대한 수령님께 간절히 말씀드리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장 순결한 마음에서 지어주시며 방금 다녀오신 현지도지의 피로로 무실 새없이 다시금 먼길을 떠나시었다. 이것은 어드레 4월 15일에 있는 일이었다.

정녕 어느 하루, 어느 한순간에 뭇춘추 없는 어버이수령님의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 이것은 평양철도국 기동예술선동대가 무대에 올린 대회사 《인민행렬차》의 줄거리이다.

못 건디게 그리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화의 마음으로 장내를 뜨겁게 달군 이들의 공연은 첫시작부터 만사람의 심금을 울렸다. 여기에는 날이 갈수록 더 해방되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의 세제로 날파 울

보내온 이들의 충정이 절게 깔려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인민은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어버이수령님을 더욱 그리워하고있으며 가장 순결한 마음에서 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고있습니다.》

대장 김장충동무를 비롯한 선동대원들은 울헤초에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철도국일군들의 깊은 관심속에 벌써 여러차례 토의를 거쳐 다듬어진 작품이 있었지만 론의를 거듭할수록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의 로고를 다 담지 못한듯싶은 느낌이 들었던것이었다.

모두가 비상한 열의를 안고 작품창조에 달려들었다.

때로는 철도부문에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의 사적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 여러 단위를 밟기도 했고 때로는 지난 시기 선동작품들을 잘 써내어 경애하는 장군님의 평가를 받은 작가들을 만나 방조를 받기도 하였다.

그 나날에 작품은 수십번이

나 새롭게 고쳐졌다. 그렇게 날이 가고 달이 흘렀다. 하지만 인민의 행복을 위해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신의 생신날마저 올린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를 순간도 잊을수 없었던 이들은 도저히 만족을 몰랐다.

제 2차 4월의 봄 인민예술 축전 개막식을 성대히 진행한 지난 11일에도, 그 다음날에도 밤도둑처럼 진행한 이들의 열면 토론은 말그대로 이미 만들어진 작품을 부단히 반복하는 하나의 연습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작품의 세계를 다시금 낚는 창조과정이었다. 그런 것이라는데 열정에 의해 심술, 최철영, 박철중동무들이 출연한 대회사 《인민행렬차》는 만사람의 가슴속에 한생토록 울려가야 할 보탬의 기적소리를 날게 하였던것이었다.

특히 이야기와 노래 《철길을 다지세》를 비롯한 종목들은 더 많은 일을 함으로써 2012년 강성대국건설의 종착역에 제일먼저 정지로 들어 서리라는 철도로동동계급의 드높은 결의를 보여준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다.

본사기자 오철룡

#### 담배련합기업소 기동예술선동대에서

지난 1월이었다. 이번 축전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담배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거기로 흥분시키고

기업소가 이룩한 자그마한 성과를 놓고 그로써 못내 기뻐하시며 자력갱생의 본보기 공장이라는 분에 넘친 평가의 말씀도 해주시고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 기동예술선동대공연을 보이주시고 선동대원들에게 은정 어린 사랑의 선물도 한 가지 안겨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기업소에 짓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없이 돌이켜보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은 뜨거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위인으로서의 찬물을 타고난 위대한분이 시라는것을 더욱 뜨겁게 절감하게 됩니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을 온 세상에 긍지높이 구가하자.

기업소종업원전체가 작품창작을 위한 현상운동에 참가하였다. 그들속에는 당일군도 있고 행정일군도 있었으며 처녀기능공도 있었다. 현상운동이 진행되는 협의의 대상은 그야말로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호모도독과 울어왔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오직 길 자력갱생의 길밖에 없다. 나는 이것을 주제로 하는 작품을 창작하여 이번 축전에 내놓자는것을 제기한다. 당직 일일군의 이런 제의에 이어 대장 김대남동무는 선동대원들에게 돌려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을 제정 이야기에 담자고 하였다.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심정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기업소에서는 최고특수동 《사력갱생만이 살길이다》와 제창이야기 《초소의 까치소리》 등 정책적대가 뚜렷하고 사상에술성이 높은 작품들을 수많은 창작할수 있었으며 선동대원들은 높은 예술적기량을 담김없이 발휘하여 1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훌륭하게 형성할수 있었다.

담배련합기업소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축전무대에서 힘있게 울린 위인칭송의 노래소리, 그것은 어버이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을 끝까지 가려는 이쪽 일군들과 종업원들만이 아닌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를 담고 푸른 4월의 하늘가에 끝없이 울려갔다.

김 옥 별

#### 창작적 열정으로 불래운 3일간

로 마련해준 근일군들, 군에서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긍지높이 구가해달라고 손치어 바래주신 사람들의 모습이 안겨왔다.

근일군들과 주된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아 사상에술성이 높은 만점짜리 작품들을 축전 무대에 올려자.

새로운 창작적 열정이 솟아올랐다. 언제 밤이 지새고 날이 밝는 지 몰랐다.

낮에는 낮대로 자료수집과 좋은 경험을 배우기 위해 해당부문 일군들을 찾아가고 밤에는 밤대로 집체적회의를 진행하며 작품들을 재형상하고

예술적기량을 높여나갔다. 고심어린 사색끝에 시와 이야기 《위대한 제부》와 제창이야기 《유기농법 좋구좋다》를 비롯하여 여러 작품들을 들이켜보았다. 축전무대에 올릴 작품들을 더 높은 사상에술적 경지에서 형성하기 위해 한편의 노래형 상에도, 하나의 선동작품에도 자신들의 깨끗한 마음과 높은 기량을 아낌없이 바치간 이들이었다.

당대회에 참가한 판공일군에게 축하편지를 부어 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을 격조높이 칭송하는 선동대장의 열골에도, 경애하는 장군님

에 예술적기량을 높여나갔다. 고심어린 사색끝에 시와 이야기 《위대한 제부》와 제창이야기 《유기농법 좋구좋다》를 비롯하여 여러 작품들을 들이켜보았다. 축전무대에 올릴 작품들을 더 높은 사상에술적 경지에서 형성하기 위해 한편의 노래형 상에도, 하나의 선동작품에도 자신들의 깨끗한 마음과 높은 기량을 아낌없이 바치간 이들이었다.

당대회에 참가한 판공일군에게 축하편지를 부어 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을 격조높이 칭송하는 선동대장의 열골에도, 경애하는 장군님

본사기자 방경찬

#### 담배련합기업소 기동예술선동대에서

지난 1월이었다. 이번 축전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담배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거기로 흥분시키고

기업소가 이룩한 자그마한 성과를 놓고 그로써 못내 기뻐하시며 자력갱생의 본보기 공장이라는 분에 넘친 평가의 말씀도 해주시고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 기동예술선동대공연을 보이주시고 선동대원들에게 은정 어린 사랑의 선물도 한 가지 안겨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기업소에 짓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없이 돌이켜보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은 뜨거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위인으로서의 찬물을 타고난 위대한분이 시라는것을 더욱 뜨겁게 절감하게 됩니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을 온 세상에 긍지높이 구가하자.

기업소종업원전체가 작품창작을 위한 현상운동에 참가하였다. 그들속에는 당일군도 있고 행정일군도 있었으며 처녀기능공도 있었다. 현상운동이 진행되는 협의의 대상은 그야말로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호모도독과 울어왔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오직 길 자력갱생의 길밖에 없다. 나는 이것을 주제로 하는 작품을 창작하여 이번 축전에 내놓자는것을 제기한다. 당직 일일군의 이런 제의에 이어 대장 김대남동무는 선동대원들에게 돌려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을 제정 이야기에 담자고 하였다.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심정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기업소에서는 최고특수동 《사력갱생만이 살길이다》와 제창이야기 《초소의 까치소리》 등 정책적대가 뚜렷하고 사상에술성이 높은 작품들을 수많은 창작할수 있었으며 선동대원들은 높은 예술적기량을 담김없이 발휘하여 1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훌륭하게 형성할수 있었다.

담배련합기업소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축전무대에서 힘있게 울린 위인칭송의 노래소리, 그것은 어버이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을 끝까지 가려는 이쪽 일군들과 종업원들만이 아닌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를 담고 푸른 4월의 하늘가에 끝없이 울려갔다.

김 옥 별

#### 창작적 열정으로 불래운 3일간

로 마련해준 근일군들, 군에서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긍지높이 구가해달라고 손치어 바래주신 사람들의 모습이 안겨왔다.

근일군들과 주된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아 사상에술성이 높은 만점짜리 작품들을 축전 무대에 올려자.

새로운 창작적 열정이 솟아올랐다. 언제 밤이 지새고 날이 밝는 지 몰랐다.

낮에는 낮대로 자료수집과 좋은 경험을 배우기 위해 해당부문 일군들을 찾아가고 밤에는 밤대로 집체적회의를 진행하며 작품들을 재형상하고

예술적기량을 높여나갔다. 고심어린 사색끝에 시와 이야기 《위대한 제부》와 제창이야기 《유기농법 좋구좋다》를 비롯하여 여러 작품들을 들이켜보았다. 축전무대에 올릴 작품들을 더 높은 사상에술적 경지에서 형성하기 위해 한편의 노래형 상에도, 하나의 선동작품에도 자신들의 깨끗한 마음과 높은 기량을 아낌없이 바치간 이들이었다.

당대회에 참가한 판공일군에게 축하편지를 부어 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을 격조높이 칭송하는 선동대장의 열골에도, 경애하는 장군님

본사기자 방경찬

#### 특색있는 공연종목들

##### 《아버지장군님 고맙습니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안주지구관공립련합기업소 화홍관공예예술소조원들이 출연한 시이악기와 노래 《아버지장군님 고맙습니다》가 관람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지금으로부터 50여년전 문덕선거구 선거자들을 만나 주시려 판방마을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판방마을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그들이 출연하는 소박한 공연도

국가무대에서 그들은 이렇게 소리높이 외쳤다.

《노래로 시작되고 노래로 승리하여온 선군혁명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부르며 더 높은 석탄증산으로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도록 하여주시고 아버지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그날의 사연을 안고 당시 8살 소년이었던 《가족합창단》의 멤버들이 함께 출연한 종목이어서 더욱 깊은 감명을 주었다.

보아주시었다.

한 반부가족이 부르는 노래를 들어주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온 가족이 다 노래를 부르니 참 좋은 일이라고, 《가족합창단》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시었다.

안주의 판방마을 그후 저저마다 《가족합창단》을 뜻고 노래를 부르며 석탄증산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였다.

하기에 뜻깊은 4월의 봄날에 인민문화공전의 화려한

##### 《백두산의 초병》들이 부른 노래

독자들은 아마 텔레비전을 통하여 방영된 예술영화 《백두의 봉나무》의 장면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할것이다.

백두산지구의 구시물동혁명전적지 강사로서 자진진출하여 우리 당의 고귀한 혁명전통을 빛내여가는 영화의 주인공 생활은 사람들에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주인공을 포함한 영화에 나오는 인물은 《백두의 봉나무》들의 모습을 우리는 화면이 아니라 이번 4월의 봄축전무대에서 직접 찾아볼수 있었다. 항일의 녀투사들의 모습을 방불케 하는 강사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그야말로 《백두산의 초병》들이 터질

수 있는 체험과 진리의 목소리를 한껏 울린 그들의 공연은 사람들에게 지울수 없는 인상을 안겨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전통은 혁명의 력사적 뿌리이며 세대와 세대를 하나의 명맥으로 이어주는 혁명의 피줄기이다.》

그들이 무대에 올린 공연종목들이 하나와 같이 흐른것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변치 않을 백두의 넘이고 주체

##### 《우리 분조포전에 붉은기 날린다》

《우리 분조포전에 붉은기 날린다.》 이것이 개성시 평화협동농장 예술소조원들이 이번 축전무대에 올린 작품의 제목이다.

농장에서는 이 밖에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그리움과 강성대국건설로 들끓는 오늘의 시대적분위기를 반영한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을 훌륭히 형성하여 무대에 올렸다.

아마도 개성시 평화협동농장원들처럼 매일, 매 시각 원수들에 대한 증오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생활하는 사람들도 쉽지 않을것이다.

조국의 해리를 가로질러간 원한의 분계선쪽을 바라보면서 증오의 두주먹을 불끈 그러쥐며 사회주의혁명봉을 더욱 억세게 지켜가던 나날은 얼마이던가.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을 지니고 분별주의자들의 머리에 칼을 찌르는 수 많은 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하여 울릴수 있었다.

농장에서는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모든 작업반과 분조들에 널리 일반화하는 원칙에서 사회주의경쟁을 잘 조직하였다.

이 나날에 농장에서는 주요 경쟁대상들을 따라잡기 위한 절절한 투쟁이 벌어졌으며 지난해에는 마침내 최고수확년 도수준을 돌파하였다.

작업반이 성과를 그대로 작품이 되었다.

그렇다. 투쟁속에 생활이 있고 생활속에 예술이 있다.

진실한 생활을 그대로 반영한 작품들이 관람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던것이다.

본사기자 려명희

#####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대표단

#####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이란군대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외교대표, 대사관 무관들이 초대되었다.

미르레자 머르티은 주조 이란이슬람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 이란군대절에 즈음하여

이란군대절에 즈음하여 아스카르 베이자푸르 주조 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 무관들이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서는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장,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 관제부문 일군들과 주조

##### 과학농사자랑을 펼친 재담

만경대구역 만경대남새전분농장 예술소조에서 이번 축전무대에 올렸던 재담이 인상적이다.

영광의 땅 만경대에서 살며 일하는 이곳 농장원들의 가슴속에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이 간직되어있다.

하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초강도강령군으로 현지도지의 길을 이어가시며 일으키신 경정열풍속에서 농장에서는 농업부문의 주요경쟁대상인 미꾸라지와 신갈, 삼지창과 은총, 동봉협동농장들에 대담하게 도전하

어났다.

—만경대농장원들의 일면세를 다시한번 펼쳐자!

작업반과 작업반, 분조와 분조들 사이에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앞서거니뒤서거니 경쟁은 지난 시기처럼 누가 팔을 더 많이 흔들었는가 아니라 어느 작업반, 어느 분조가 앞선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더 많이 받아들였는가 하는 과학농사경쟁으로 변질되었다.

다수확률중의 도입, 우렁이에 의한 유기농법 등 앞선 기술의 도입...

##### 평양철도국 기동예술선동대에서

《어버이수령님, 오늘 나는...》

은 나라 인민이 드리는 축원의 인사를 오늘만은 받으셔야 한다고 열차원은 위대한 수령님께 간절히 말씀드리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장 순결한 마음에서 지어주시며 방금 다녀오신 현지도지의 피로로 무실 새없이 다시금 먼길을 떠나시었다. 이것은 어드레 4월 15일에 있는 일이었다.

정녕 어느 하루, 어느 한순간에 뭇춘추 없는 어버이수령님의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 이것은 평양철도국 기동예술선동대가 무대에 올린 대회사 《인민행렬차》의 줄거리이다.

못 건디게 그리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화의 마음으로 장내를 뜨겁게 달군 이들의 공연은 첫시작부터 만사람의 심금을 울렸다. 여기에는 날이 갈수록 더 해방되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의 세제로 날파 울

보내온 이들의 충정이 절게 깔려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인민은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어버이수령님을 더욱 그리워하고있으며 가장 순결한 마음에서 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고있습니다.》

대장 김장충동무를 비롯한 선동대원들은 울헤초에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철도국일군들의 깊은 관심속에 벌써 여러차례 토의를 거쳐 다듬어진 작품이 있었지만 론의를 거듭할수록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의 로고를 다 담지 못한듯싶은 느낌이 들었던것이었다.

모두가 비상한 열의를 안고 작품창조에 달려들었다.

때로는 철도부문에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의 사적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 여러 단위를 밟기도 했고 때로는 지난 시기 선동작품들을 잘 써내어 경애하는 장군님의 평가를 받은 작가들을 만나 방조를 받기도 하였다.

그 나날에 작품은 수십번이

나 새롭게 고쳐졌다. 그렇게 날이 가고 달이 흘렀다. 하지만 인민의 행복을 위해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신의 생신날마저 올린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를 순간도 잊을수 없었던 이들은 도저히 만족을 몰랐다.

제 2차 4월의 봄 인민예술 축전 개막식을 성대히 진행한 지난 11일에도, 그 다음날에도 밤도둑처럼 진행한 이들의 열면 토론은 말그대로 이미 만들어진 작품을 부단히 반복하는 하나의 연습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작품의 세계를 다시금 낚는 창조과정이었다. 그런 것이라는데 열정에 의해 심술, 최철영, 박철중동무들이 출연한 대회사 《인민행렬차》는 만사람의 가슴속에 한생토록 울려가야 할 보탬의 기적소리를 날게 하였던것이었다.

특히 이야기와 노래 《철길을 다지세》를 비롯한 종목들은 더 많은 일을 함으로써 2012년 강성대국건설의 종착역에 제일먼저 정지로 들어 서리라는 철도로동동계급의 드높은 결의를 보여준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다.

본사기자 오철룡



2. 8비탈련합기업소 예술소조원들의 3중창과 방창 《온 나라의 대경사로세》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기동예술선동대원의 기능예술 《영생축원》

##### 수리아 디마스끄종합대학대표단 도착

수리아 디마스끄종합대학 대표단이 19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 총련문예일군대표단이 떠나갔다

제 2차 4월의 봄 인민예술 축전에 참가하였던 김경수 일군대표단이 19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 평양철도국 기동예술선동대에서

《어버이수령님, 오늘 나는...》

##### 수리아 디마스끄종합대학대표단 도착

수리아 디마스끄종합대학 대표단이 19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 총련문예일군대표단이 떠나갔다

제 2차 4월의 봄 인민예술 축전에 참가하였던 김경수 일군대표단이 19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 평양철도국 기동예술선동대에서

《어버이수령님, 오늘 나는...》

##### 수리아 디마스끄종합대학대표단 도착

수리아 디마스끄종합대학 대표단이 19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 자주시대 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절세의 위인

뜻깊은 4월의 명절들에 즈음하여

## 캄보자왕국 대왕과 국왕이 우리 나라 대사관에 대형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캄보자왕국 대왕 노로돔 시하누크가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 대형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대형꽃바구니의 뎡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김일성대원수각하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캄보자의 노로돔 시하누크대왕》이라고 적여져있다. 대왕의 위임에 따라 대형꽃바구니를 왕궁담담 부수상 룡쌘 율을 단장으로 하는 캄보자왕국 정부 왕궁성대표단이 1일 우리 나라 대사관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에 증정하였다.

부수상은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대왕의 경모의 인사를 경애하는 장군님께 전하여드릴 것을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부탁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캄보자왕국 국왕 노로돔 시하누크가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 대형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대형꽃바구니의 뎡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김일성대원수각하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캄보자왕국 국왕 노로돔 시하누크》라고 적여져있다. 국왕의 위임에 따라 대형꽃

바구니를 왕궁담담 부수상 룡쌘 율을 단장으로 하는 캄보자왕국 정부 왕궁성대표단이 1일 우리 나라 대사관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에 증정하였다. 부수상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국왕의 경모의 정을 경애하는 장군님께 전하여드릴 것을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이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축원하였다.

의 위대한 귀감이시다. 정녕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따를수 없는 인품을 지닌 김일성주석처럼 동지가 많고 벗이 많으신분을 력사는 알지 못한다. 오늘 김일성주석 그대로이신 김정일장군에 의하여 주석의 동지애의 력사는 계속되고 있다.

전체 조선인민은 김정일장군님과 사상과 뜻을 같이하면서 그이의 선군정치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고있다. 조선에는 김정일장군님의 명령, 지시대로 자신의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영웅들이 수없이 많다.

김정일장군님의 독창적인 선군정치와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 있는 한 조선인민은 언제나 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인민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전문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비행기와 함께 서슴없이 자국의 길을 택한 군인도 있고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김정일장군만세!》라는 글발을 남기고 최후를 마친 15명의 군인들도 있으며 머지는 수류탄을 몸으로 덮어 김정일주석의 초상화와 김정일군방위원장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시고 동지들을 구원한 군인들도 있다. 전군에 수령령사용위정직이 차남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라면 자기 한몸숨도 서슴없이 바치는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들이 있는 한 조선인민군 군인들인것이다. 김정일군방위원장에 의하여 조선인민군은 강력한 핵역력까지 갖춘 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지휘관과 병사, 관

와 인민이 하나의 운명공동체를 이룬 일심단결의 위력을 가지게 되었다. 조선인민군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이 나라 신문 《저너 씨라》 3일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를 모시고 편집국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조선인민군을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신 것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로업적에 대하여 찬양하고 조선인민군을 최강군으로, 진정한 인민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신 김정일령도자께 열렬한 축하를 드리는것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 류의 마땅한 도로로, 영광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 여러 나라에서 행사

태양절에 즈음하여 인디아에서는 집회가, 케소코에서는 강연회가, 민주공고에서는 독보회가 3월 27일과 29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문집 그리고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소개하는 우리 나라 도서들이 행사장들에 전시되어있다. 행사들에는 인디아국민대회당, 델리주위원회, 주체사상자력강성연구회, 파블리코 뉴스신문사, 케소코 제히-모라바공산당, 님부르주위원회, 민주공고 김정일주체사상연구소조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캄보자왕국 정부 왕궁성대표단이 1일 우리 나라 대사관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에 증정하였다. 부수상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국왕의 경모의 정을 경애하는 장군님께 전하여드릴 것을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이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축원하였다.

태양절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높이 추대되신 17歳, 영웅적조선인민 장군 78歳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 로제야, 캄보자신문이 특집하였다. 인도네시아신문 《수아라 까르야》 7일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절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를 모시고 《조선인민의 주요기념일이 있는 4월》이라는 표제 밑에 여러 제목의 글들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글들에서 김일성주석은 자주시대 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태양과도 같으신분이라고 높이 칭송하고 그이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셨으며 지난날 식민지노예의 수난을 당하던 수많은 억압박인민들이 자기 운명의 당당한 주인으로 등장하는 력사의 새시대를 펼쳐왔으며 자주주의 도도한 흐름이 세계를 휩쓸게 되었다고 찬양하였다. 주체사상은 만민의 심장을 뚫어준 위대한 수령 신문의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여러 나라와 지역에 수많은 결성되어 적극 활동하고있는데 대하여 자못송사를 하였다. 신문은 은 나라 대가정의 어머니가 되시어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시어 왔으며 민족과 조국, 사상과

행사를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년이 되는 2012년에 반드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주기며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성과를 이룩하리라 하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민주공고 김정일주체사상연구소 조 위헌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1부 항일혁명연 4권 제 12페이지 《혁명전우장말화》 (1, 2) 를 독보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어린시절에 일제에게 배웠던 길 나라를 찾기 위하여 혁명의 길에 나서셨다. 이 과정에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인품에 매혹된 수많은 혁명동지들이 그이를 따라 혁명투쟁의 길에 나섰으며 그이를 위하여 자기 모든것을 바쳤다. 김일성주석은 혁명적동지에

대한 영웅적조선인민 장군 78歳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 로제야, 캄보자신문이 특집하였다. 인도네시아신문 《수아라 까르야》 7일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절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를 모시고 《조선인민의 주요기념일이 있는 4월》이라는 표제 밑에 여러 제목의 글들을 편집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메히코인 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헤수스 안토니오 까블로스 에르난데스가 1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조선인민은 가장 결속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선군정치는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우리는 김일성주석의 탄생 기념일에 즈음하여 그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그이의 위업을 계승하여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군을 현명하게 령도하는 김정일동지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우리는 김정일동지의 령도 밑에 조선인민이 가까운 앞날에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이룩하리라 믿는다.

## 군국주의독사의 위험한 기도

군국주의야망에 들뜬 일본반동들이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해병고있다. 최근 일본방위상은 《니호게이지아시인》의 회견에서 《무기수출3원칙》의 운용을 제검토하여 자국이 미국이외의 나라와도 무기 및 무기기술의 공동개발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보다 앞서 일본방위는 국제중립의 의무위원회에서 《유사시》를 국외의 《안전》을 위해서는 미군에 의한 핵탄입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말하자면 《유사시》 일본명토를 미제의 핵작전기조로 제공하는것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소리이다. 일본진전계층이 불러낸 벼락이 돌이켜서 이런 군국주의나발을 치면대는것은 매우 실상치 않다. 그것은 속에 칼을 품은자들의 무모한 군사대국화책동, 제침야망의 발로

다 한다. 한편 유료를 사용하는 유럽 동맹 성원국들에서 올해 2월에 소매업체들의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 감소되었다. 당국의 정책에 불만

태양절에 즈음하여 메히코인 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헤수스 안토니오 까블로스 에르난데스가 1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조선인민은 가장 결속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김일성동지께서는는 가장 중요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김일성동지께서는는 가장 중요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메히코인 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헤수스 안토니오 까블로스 에르난데스가 1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조선인민은 가장 결속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김일성동지께서는는 가장 중요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메히코인 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헤수스 안토니오 까블로스 에르난데스가 1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조선인민은 가장 결속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김일성동지께서는는 가장 중요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메히코인 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헤수스 안토니오 까블로스 에르난데스가 1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조선인민은 가장 결속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김일성동지께서는는 가장 중요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메히코인 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헤수스 안토니오 까블로스 에르난데스가 1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조선인민은 가장 결속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김일성동지께서는는 가장 중요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메히코인 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헤수스 안토니오 까블로스 에르난데스가 1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조선인민은 가장 결속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김일성동지께서는는 가장 중요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 단편서투른 솜박곡질

일본에서 사상밖의 일이 벌어져 여론의 눈길을 끌고있다. 일미사이의 핵밀약과 관련한 문서의 일부가 없어진것이다. 일본의 한 고위관리 가 기자회견에서 이 사실을 공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일본은 《외교부서소실문제》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어쩌다 하면서 법적 때를두고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머리를 갸웃거리고있다. 특히 몇몇 관리들이 비밀리에 다루는 극비핵문서가 쥐고서도 모르게 자취를 감추었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기때문이다. 일본에서는 미국과의 핵밀약관계를 공개할것을 요구하는 여론이 물결처럼 하고있다. 문제는 일본이 미국과의 핵밀약관계를 사실 그대로 가뿐히

태양절에 즈음하여 메히코인 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헤수스 안토니오 까블로스 에르난데스가 1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조선인민은 가장 결속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김일성동지께서는는 가장 중요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메히코인 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헤수스 안토니오 까블로스 에르난데스가 1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조선인민은 가장 결속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김일성동지께서는는 가장 중요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메히코인 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헤수스 안토니오 까블로스 에르난데스가 1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조선인민은 가장 결속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김일성동지께서는는 가장 중요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메히코인 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헤수스 안토니오 까블로스 에르난데스가 1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조선인민은 가장 결속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김일성동지께서는는 가장 중요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메히코인 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헤수스 안토니오 까블로스 에르난데스가 1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조선인민은 가장 결속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김일성동지께서는는 가장 중요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메히코인 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헤수스 안토니오 까블로스 에르난데스가 1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조선인민은 가장 결속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김일성동지께서는는 가장 중요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메히코인 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헤수스 안토니오 까블로스 에르난데스가 1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조선인민은 가장 결속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김일성동지께서는는 가장 중요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 백문규

일본에서 사상밖의 일이 벌어져 여론의 눈길을 끌고있다. 일미사이의 핵밀약과 관련한 문서의 일부가 없어진것이다. 일본의 한 고위관리 가 기자회견에서 이 사실을 공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일본은 《외교부서소실문제》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어쩌다 하면서 법적 때를두고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머리를 갸웃거리고있다. 특히 몇몇 관리들이 비밀리에 다루는 극비핵문서가 쥐고서도 모르게 자취를 감추었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기때문이다. 일본에서는 미국과의 핵밀약관계를 공개할것을 요구하는 여론이 물결처럼 하고있다. 문제는 일본이 미국과의 핵밀약관계를 사실 그대로 가뿐히

태양절에 즈음하여 메히코인 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헤수스 안토니오 까블로스 에르난데스가 1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조선인민은 가장 결속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김일성동지께서는는 가장 중요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메히코인 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헤수스 안토니오 까블로스 에르난데스가 1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조선인민은 가장 결속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김일성동지께서는는 가장 중요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메히코인 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헤수스 안토니오 까블로스 에르난데스가 1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조선인민은 가장 결속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김일성동지께서는는 가장 중요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메히코인 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헤수스 안토니오 까블로스 에르난데스가 1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조선인민은 가장 결속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김일성동지께서는는 가장 중요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메히코인 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헤수스 안토니오 까블로스 에르난데스가 1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조선인민은 가장 결속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김일성동지께서는는 가장 중요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메히코인 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헤수스 안토니오 까블로스 에르난데스가 1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조선인민은 가장 결속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김일성동지께서는는 가장 중요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메히코인 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헤수스 안토니오 까블로스 에르난데스가 1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조선인민은 가장 결속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김일성동지께서는는 가장 중요한 위인 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부르셨다는 감회속에 기념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